AI 영상 제작 프로젝트 리뷰

3가지 프로젝트 릴스 제작을 통해 얻은 툴 비교 및 실무 인사이트

01. 공통 인사이트

AI 영상 제작 툴의 비교 평가 및 프롬프트 작성 노하우

AI 툴 비교 평가 (공통 영역)

스토리보드 / 캐릭터 시트

GPT Image 2 승

GPT Image 2와 나노바나나2를 비교 테스트한 결과, 캐릭터의 일관성 유지 및 디테일한 상황 묘사 측면에서 GPT Image 2가 월등히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영상 제작 AI 툴

Grok 승

Grok, Veo, Omni를 비교한 결과 영상의 품질과 프롬프트 제어력에서 Grok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툴마다 수정 방식이 달라 별도의 프롬프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차이

AI 툴마다 부분 수정을 요청하는 프롬프트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Grok 수정 방식 (명시적 통제)

> [수정] 해당 영상을 9:16비율로 작업해줘.
>
> [유지] 카메라 앵글, 전체 구도, 조명, 야경 배경, 색감, 인물(포즈/의상)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해줘. 절대 변경 금지.

Veo / Omni 수정 방식 (맥락적 통제)

> "현 영상 스타일 유지하면서 [원하는 변경점 작성]"

*결론: 프롬프트마다 노하우를 쌓아가야 하며, 영상 일부 수정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02. 케이스 스터디

아이돌 티저, 인생 명언, 프로육아러 제작 사례 분석

Kpop idol boy group silhouette on stadium stage with laser 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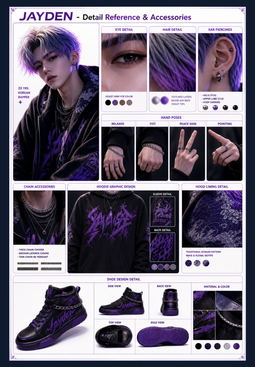
Case 1: 5SOUL 아이돌 티저

콘텐츠 컨셉

케이데헌의 '사자보이즈'가 1위를 석권할 때, 만년 2위를 차지하는 아이돌 그룹 '5SOUL'의 애환과 열정을 담은 세계관.

- **화려한 연출:** 긴장감 있는 티저 영상을 위해 그록(Grok)에 상황 프롬프트를 부여.
- **지루함 탈피:** 영상 중간중간 임팩트 있는 특수 효과를 삽입하여 시청 유지율 확보.
- **브랜딩:** Claude Design을 활용하여 고퀄리티의 그룹 심볼 및 엔딩 컷 제작.

5SOUL 제작 파이프라인



01. 캐릭터 기획

GPT Image 2를 활용하여 멤버별 캐릭터 시트 및 외형 디자인 도출

02. 영상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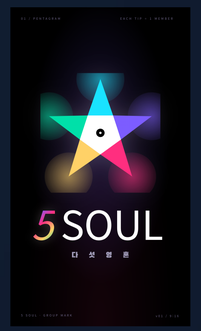
Grok에 세밀한 상황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긴 호흡의 티저 영상 베이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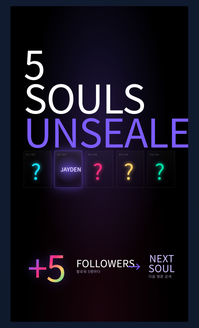
03. 효과 삽입

Grok을 통해 영상 중간 지루함을 덜어낼 다이나믹한 트랜지션 및 효과 부여

04. 심볼 & 엔딩

Claude Design을 활용해 5SOUL의 공식 심볼 마크와 아웃트로 컷 완성





Case 2: 인생 명언

콘텐츠 컨셉

시청자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명언들을 시각적 아트로 표현하고, 감동을 배가시키는 숏폼 영상.

- **시각 기획:** 나노바나나2를 활용하여 초반 스토리보드 및 캐릭터 시트 스케치.
- **영상미:** 확정된 이미지 에셋을 바탕으로 Grok을 이용해 정교한 모션 영상 제작.
- **오디오:** 슈퍼톤(Supertone)을 활용해 명언에 어울리는 울림 있는 나레이션 생성.

인생 명언 제작 파이프라인

01. 기획 & 스케치

나노바나나2를 통해 영상의 톤앤매너, 스토리보드, 씬별 캐릭터 시트 도출

02. 비디오 생성

도출된 스케치 이미지를 바탕으로 Grok을 사용하여 고화질 모션 영상 제작

03. 나레이션

슈퍼톤(Supertone) AI를 활용하여 감성적이고 몰입감 있는 음성 파일 생성

04. 최종 편집

캡컷(CapCut)을 사용하여 영상, 나레이션, BGM, 텍스트 자막을 최종 합체

Case 3: 프로육아러 최차장

콘텐츠 컨셉

치열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K-직장인 '최차장'의 리얼한 페이크 다큐 숏폼.

- **텍스트 생성:** 제미나이(Gemini)를 통해 현실감 넘치는 대본 및 시나리오 작성.
- **비디오 생성:** 옴니(Omni)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인물 영상 제작.
- **BGM 제작:** 수노(Suno) AI를 활용해 상황에 맞는 배경음악 자체 제작.
- **뼈저린 교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전 스토리보드'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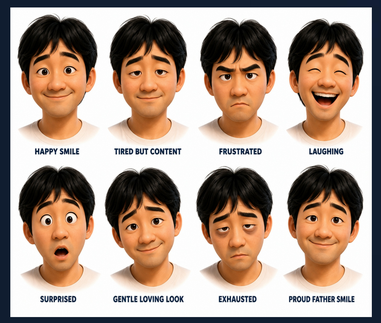
최차장 제작 파이프라인

01. 대본 작성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하여 페이크 다큐 형식의 디테일한 에피소드 대본 제작

02. 캐릭터 세팅

GPT Image 2를 활용해 최차장 캐릭터 시트 생성 (스토리보드 누락으로 난항)



03. 영상 & 음악

Omni를 통한 실사 영상 제작 및 Suno를 활용한 맞춤형 배경음악(BGM) 생성

04. 최종 합체

캡컷(CapCut)에서 모든 소스(영상, 대본 텍스트, 음악)를 싱크에 맞춰 최종 편집

핵심 교훈: 일관성 유지의 한계

1명

현재 완벽 통제 가능한 한계치

스토리보드의 뼈저린 중요성

영상 기획 단계에서 **스토리보드**가 누락되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 **인물 일관성의 난제:** 동물 캐릭터는 약간 달라도 티가 덜 나지만, 사람 캐릭터는 미세한 차이도 즉각적인 위화감을 줍니다.
- **다수 캐릭터 제어 불가:** 씬 안에 캐릭터가 늘어날수록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캐릭터 고정 기능이 존재하지만 이미지 2장 첨부라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종합 결론 및 향후 과제

신규 툴 발굴

이번 테스트를 통해 **젠스파크 (Genspark)**의 괜찮은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영상 파이프라인에 적극 도입하여 퀄리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프롬프트 고도화

Grok, Omni 등 각 AI 비디오 생성 툴의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부분 수정 및 구도 통제를 위한 **툴 맞춤형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기획력 강화

캐릭터 붕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탄탄한 기획입니다. 아무리 AI 툴이 발전해도 **철저한 스토리보드 중심의 작업 프로세스**를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